

Lee Hee Sook

The first Korean student who studied
in Scandinavia.

Her experience as an Asian
in the mysterious continent.



Hee Sook Lee. There would be no single word describing who she is. She decided to leave for Scandinavia because of a song by Edvard Grieg, Solveig's Song, and became the very first student who studied in Scandinavia. Studying different fields of arts, she has not become an artist and a scholar.

She is now working in UNESCO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executive, and building her career in Scandinavia. From her courageous decision to enter into mysterious land by herself to her endless passion to grow, you can easily find her strong initiative and decisiveness. Let's see how she found herself and what she experienced on the other side of the earth.



이희숙. 그녀를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그 어떤 일보다도 힘들 듯 하다. 그리그(Edvard Grieg)의 '솔베이지의 노래(Solveig's Song)'가 탄생한 스칸디나비아의 매력에 반해 1975년 노르웨이로 떠나면서 동양인 최초의 스칸디나비아 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 그 뒤 다방면의 예술분야를 공부하며 학자로서, 또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재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그녀는 아직까지도 스칸디나비아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자신을 그려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홀로 그 머나먼 곳을 가겠다고 나선 무모함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온 열정까지, 당대 여성으로서 대단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지녔던 그녀. 스칸디나비아라는 곳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떠났던 스칸디나비아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렸고, 앞으로 어떤 삶을 그려나갈지 궁금해졌다.



At 1977 Bergen International Festival with Harald Sæverud, most famous composer in Norway.

The very first touch with Scandinavia

지금도 시를 읽으면 시의 주인공이 되어 그 속으로 빠져든다는 이 희숙씨. 그녀는 어렸을 적에도 역시 시를 낭독하는 영어 선생님의 모습에 반했던 감수성 많은 소녀였다. 그런 그녀였기에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를 듣고 노르웨이로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녀에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렇게 스칸디나비아로 떠났고 홀로, 그리고 온몸으로 신비로운 그곳을 마주했다.

벌써 30년 전입니다. 1975년, 유학도 생소한 그 시절 노르웨이로 떠난다고 했을 때,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여자는 당연히 대학 졸업 후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유학을 가더라도 영국, 미국이나 독일이 대부분이었구요. 흔히들 바이킹의 나라로 알고 있는 노르웨이는 모두에게 그리고 저한테도 생소함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남이 가지 않는 나라에서 나를 찾고 더 큰 꿈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섭섭했을 텐데도 제 선택을 기뻐해 주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날고 싶을 때까지 훨훨 날아가라며 저를 격려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스칸디나비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익히 들어 왔던 것처럼 빼어난 자연 경관에 감탄했죠.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자연처럼 순수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이들이 저에게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웃음) 당시 유럽은 동양 여성에 대해서 호기심이 무척 컸어요. 그들에게 미지의 세계였던 동양으로 여행을 가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요. 동양 여자, 그것도 한국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저는 인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구요.

그때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당시 한국에서 스칸디나비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술대학에 갔을 때, 노르웨이 북쪽에 살던 사미 원주민 학생과 짝이었어요. 검은 머리에 작은 키를 지닌 그들은 저 역시 사미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미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웃음) 한국에서 여기까지 유학을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입양되어 스칸디나비아에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만난 입양아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동양인이 반가워 노르웨이어로 말을 걸어오기도 했구요.

아무래도 한국과는 자연도, 사고방식도 다른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쓴 <나의 스칸디나비아>를 보니 백야가 적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시간개념을 잃어버렸어요. 항상 태양이 떠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안 보이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뚜렷한 사계절이 없어 유행이란 핑계로 멋을 부릴 수도 없었고요. (웃음)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있는 곳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중엔 오히려 백야뿐 아니라, 여기서 펼쳐지는 축제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생활 속에서 문득 외로움에 사무칠 때도 있으셨을 텐데요. 물론이죠. 끝없는 외로움이 파고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바빠 그럴 틈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외로움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닐까요?

그럴 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겨내셨는지요? 아니면 외로움 자체를 즐기셨는지요? 외로움이란 것은 무엇인가 비교했을 때 느껴 집니다. 저도 한때 외로움을 달래려 클럽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도 역시 저처럼 외로움을 달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외로움이 돼버렸죠. 그것을 깨달은 후 인정해 버립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도 죽을 때도 혼자라는 것ですよ. 외로울수록 단순히 일상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곤 해요. 책 정리를 하거나 주변을 치우는 사이, 저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임무와 그에 따른 즐거움이 돌아오죠.

‘슬베이지의 노래’에 반해 오게 된 스칸디나비아입니다. <SKANFORM> 독자들이 꼭 들어봤으면 하는 음악이 있다면요? 장 시벨리우스(Jean Sibelius)의 ‘핀란디아(Finlandia)’를 추천하고 싶어요. ‘핀란디아’는 러시아 지배하에 있던 핀란드의 독립과 자유를 기다리는 노래예요. 아리랑이 우리 한국인에게 의미가 있듯이 핀란드인들은 이 음악을 들으면 엄숙해집니다. 스칸디나비아를 알려면 이곳의 민족낭만주의를 배경으로 한 멜로디와 리듬을 알아야 해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덴마크의 칼 닐센(Carl Nielsen)과 스웨덴의 휴고 알벤(Hugo Emil Alfven)의 음악도 중요합니다.



With correspondents who worked in Norway back in 1992.

Finding Myself, Scandinavia

이렇게 그녀는 이방인으로 그리고 모두의 관심을 받는 동양 여자로 그들의 삶에 녹아들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냈다. 종교와 다양한 예술 분야를 공부 하고, 그녀의 예술적 재능을 접목해 예술가로서 자신의 역량을 내보이기도 하면서 말이다.

한편, 스칸디나비아의 저명인사들을 만나면서 저널리스트로도 활발히 활동하기도 했다. 배움에 대한 멈추지 않는 열정과 예술에 대한 갈망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종교 간의 상호 영향과 교류를 연구해 온 그녀는 현재 세계를 돌며 종교적 문양과 디자인에 색채를 접목하여 연꽃과 괴테를 모티브로 한 'Gothe in Me'라는 전시를 하고 있다.)

지금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머물고 계신데요. 요즘 일과가 궁금합니다. 전공한 연구에 관한 자료들을 찾으러 도서관에 가곤 해요. 또 써야 할 기사와 전시 준비도 하러 가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전시를 보러 가거나 집 근처 산책을 하기도 하죠. 수영도 좋아하는데, 수영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우리가 스쳐 간 그 물결 속에서 투명함과 무늬를 바라보는 것이 좋아서요.

전공은 신문방송학인데 그 후 예술은 물론 신학, 철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 하셨어요. 이렇게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저의 진정한 재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니다. 물론 공부를 좋아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호기심은 늘 멈추지 않았던 것 같네요. (웃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방면으로 공부하고 난 후 느낀 점은 모든 것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공부와 작업을 하면서 영감을 준 스칸디나비아 예술가들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에밀 놀데(Emil Nolde)요. 그의 강렬한 표현주의 컬러를 좋아해요. 건축에서는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심미적인 이념이 저를 이끌었어요. 음악은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크(Baroque) 리듬, 디자인은 스칸디나비아의 기능적이며 아름답고 인간적인 접근법이 눈에 띄는 1930~50년도의 디자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핀란드를 대표하는 캐릭터 무민(Moomins)의 작가 토베 얀손(Tove Jansson), 노르웨이 첫 여성 수상 그로 할렘 브룬틀란드(Gro Harlem Brundtland) 등 많은 사회 저명인사를 인터뷰하셨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두 행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을 만나 오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행복이란 단어에 몸서리 칠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에는 조그만 행복과 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행복이란 기억에서 잊어버린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좋은 와인을 마실 때 등으로 순간적입니다. 큰 행복은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찾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재능과 감성을 발전시켜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행복 아닐까요?

선생님은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요? 이 질문에 우선 '다행'이란 어휘를 대신하고 싶은데, 다행이라는 것은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저는 다행한 사람에 속한다고 느낍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가 행복을 위해 지급한 고통의 대가이기도 하지요.

만약 시간을 돌려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면 그때도 스칸디나비아를 선택하실 건가요? 또다시 갈림길에 선다면 스칸디나비아보다 다른 곳으로 향하고 싶네요. 1975년의 스칸디나비아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곳하기에 더는 신비롭진 않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곳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깐 굳이 다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웃음)

Future of Scandinavia and Korea

처음 노르웨이 예술대학에 갔을 때, 그 누구도 감히 그녀가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었다고 한다. 서로에게 미지의 대상이었던 스칸디나비아와 한국. 그녀는 그 관계를 온몸으로 마주한 첫 한국인이자 스칸디나비아 유학생이었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만큼 인기도 있었고 그만큼 문화적 갈등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녀가 한국을 떠난 지도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한국과 스칸디나비아의 과거와 현재를 오롯이 겪은 그녀가 생각하는 이 둘의 미래가 궁금해졌다.

요즘 한국에서는 스칸디나비아를 배우자라는 게 사회 모토가 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시스템, 복지,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서요.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이고 교육, 디자인 등 모든 분야가 우수합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이 아니고 서유럽의 풍조이기도 해요.

이러한 열풍에 걱정되는 바는 없으신지요?

한국의 경우, 유행을 잘 따르고 충동적이며 열정적이지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북유럽을 무조건 따르는 것 보다 우리의 것을 우선 살려야 합니다.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발달해온 각각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열풍에 우리 것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분명 한국이 배워야 할 스칸디나비아만의 가치관이나 덕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서 충실하게 검소한 생활을 하는 모습, 잘난 척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정직한 모습과 묵묵함입니다. 이 묵묵함은 답답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귀는데 힘들 때도 있지만요. 권력 평등과 인간 존엄에 관한 가치관도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학 후 약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그들에게 와 닿는 의미나 거리감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스칸디나비아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한국에 한국전쟁 참전 및 원조 등과 관련이 있었지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많은 한국인이 스칸디나비아를 찾아옵니다. 이들 나라의 관광 사업을 도와주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한국 기업을 통해 실력 있고 부지런한 나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5년 스칸디나비아와 2014년 스칸디나비아를 비교해본다면 가장 크게 바뀐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의 스칸디나비아는 더 순수하고, 더 배타적이고,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칸디나비아는 더 오염이 되었고, 더 자유롭고, 전보다 덜 행복한 것 같은요. 그렇게 된 이유는 자본과 물질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전보다 덜 행복하게 된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식을 가지지 않는 비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스칸디나비아 노동 인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대신 많은 이민자가 오면서 스칸디나비아는 열린 복합사회가 되었습니다. 망명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남유럽사람들, 아프리카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게 그 예지요. 따라서 스칸디나비아의 순수한 문화와 사회의 전통적인 구조가 달라지면서 기존에 없던 문제들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첫 스칸디나비아 유학생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두 나라 사이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꼭 해오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며 지금의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우리의 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세요. 영혼, 지식, 문화, 유머가 몸에 밴 멋쟁이가 되려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서 빨리 대면하세요. ●●

Editor Yang Yeol Mae 사진 제공 Lee Hee Sook

The very first touch with Scandinavia

When she reads poems, she still becomes a girl empathizing herself with the main character in it. In her young age, she was a very emotional girl following literature teacher and falling in love with him. It is not surprising to hear that she decided to study in Norway after listening to the Solveig's Song. She left alone to Scandinavia and faced the secretive places all by herself.

Already, it is thirty years ago. Back in 1975, when you first decided to go to Norway to study, how did people around you react?

Back then, girl friends of my age usually got married after graduating college. For those who wish to study abroad, it was mostly to America, England or Germany. Norway, the country of Viking, was unfamiliar to most people and me as well. That was what I want; to start looking for bigger dreams in a mysterious land that no one goes to. I expected my mother to be worried but she was rather happy with my decision. She encouraged me by saying that I have only life so I better fly away as high as I want.

That is very encouraging.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visited Scandinavian countries?

As I heard before, the nature was amazing. People were as naïve and kind just like the nature. They seemed to be more surprised than me. Back then, Europeans had huge curiosity for Asian women. Some people even traveled to unknown land in Asia. I got so much attention only by the fact I am Asian and came from a strange country called Korea.

What was their impression on Korea back then?

Same as people in Korea did not know anything about Scandinavia; they barely knew anything about Korea. When I first entered art school, I had a native Norwegian Sami classmate. She thought I was also native Sami because of my black hair and short height. I guess she never imagined that Asian girl would come to study there. What's more surprising is that there were many young Koreans adopted by Scandinavian people. When I ran into adopt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y just talked to me in Norwegian because they were so happy to meet another Asian..

It would have been very difficult to settle down in such a different environment in light of their philosophy or nature. In your book, My Scandinavia, you also mentioned that you had difficulties getting used to white night.

I lost the sense of time when I first got here. Sometimes the sun was always up in the sky and sometimes never. Unlike Korea, because there were no four seasons, I couldn't really dress nicely as well. But humans adjust to where they are. Soon, I longed for not only white nights but the different festivals held in Scandinavia.

I am sure there were days you just could not control missing the old days back home.

Of course. Sometimes, the loneliness just digs into your heart. But again, aren't you happy by the fact that you actually have time to be lonely? Some people are way too busy to even be lonely.

How did you overcome those days or did you rather enjoy your loneliness?

Loneliness comes when you compare yourself to someone. There were times I went to clubs to forget my loneliness. But soon after, I realized those people also came for the same reason and I had another feeling of loneliness. Once you realize that, you just admit the fact that people are born and die alone. Whenever I felt lonely, I started my daily work and by organizing my books or doing my duty, came happiness and pleasure to me.

You decided to go study in Scandinavia after hearing Solveig's Song. Do you have any music you want to recommend for readers?

I recommend Finlandia by Jean Sibelius. Finlandia is a song composed under Russian Empire, longing for independence and freedom of Finland. As Arirang is a meaningful song for Koreans, Finnish people become solemn when they listened to Finlandia. To understand Scandinavia, you have to understand the melodies and rhythms of Scandinavian romanticism. It carries their identity in it. Songs by Carl Nielsen of Denmark and Hugo Emil Alfvén of Sweden are very important as well.

Finding myself in Scandinavia

As an alien, or Asian woman getting attention from people, she lived out a new journey trying to get used to their habits and cultures. She studied different religions and arts, and eventually showing her potential as an artist.

Furthermore, she met a number of famous figures in Scandinavia as a journalist. Her constant passion for learning and desire for arts are still ongoing in Scandinavia. (She has been studying the co-relationship and influence between religions. These days, she is going around the world holding her own exhibition called 'Gothe in Me' with religious patterns and colored designs of lotus and Goethe.

You are now living in Helsinki, Finland. We are curious about your daily life there.

I usually head to library to do a research on my major. Also I have to prepare articles and get ready for my exhibition. Sometimes I go to other exhibition or take a walk in the neighborhood. I also like swimming, but rather than exercising itself, I love to stare at the waves, or the trace, made by people.

Currently, you are majoring in journalism but you also studied theology and philosophy. Can you tell me what motivated you to have diverse interest and study multiple majors?

It was all part of my process to find my given talents. It is true that I never stopped asking questions and enjoyed learning and studying. Ironically, after studying different areas, I learned that it is all connected.

Who has inspired you the most for your work and studies?

In fine arts, I really like Emil Nolde for his expressive choice of colors. In architect, Le Corbusier's esthetic philosophy has led me. For music, I like Baroque style rhythms, and love Scandinavian practical and beautiful designs of 1930 to 1950s.

As a journalist, you have interviewed many public figures as Tove Jansson, a Finnish novelist who wrote The Moomins, and Gro Harlem Brundtland,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of Norway. There seemed to be common factors in them. All of them put most values in happiness. Most of them After meeting numerous happy people, please tell me how you define happiness.

Once, I was captured by the word 'happy'. In my opinion, there are small and big happiness. Small happiness is simple moments as getting a phone call from an old pal or having good wine. Big happiness is seeking for your passion and achieving them. In other words, I think happiness is using all your given talents and emotions and sharing that with people around you.

Do you feel happy about your life?

I would say I am rather fortunate. The word fortunate really is the key for happiness. I am a fortunate person because I have conditions that I can control to choose what I want to do. I have worked hard to get those conditions.

If you can go back to when you made your decision, would you choose Scandinavia again?

I would like to have another adventure if that is possible. Scandinavia of 1975 is no longer mysterious because it made me who I am today.

There are lots of places where I have not experienced yet so I won't choose Scandinavia.



Future of Scandinavia and Korea

When she first entered art school in Norway, nobody expected her to be a student from Korea. It shows how little two countries knew each other. She was the first Korean and student in Scandinavia at the invisible frontier. As much attention she had, she had to face cultural conflicts as well. Thirty years have passed. I was curious how she thinks of two countries' future as a person who experienced both regions well.

In Korea, there is a huge trend to go after Scandinavia from education, administration system, and welfare to designs. Scandinavian countries surely do provide best welfare and top in education and designs. We can find the trend not only from Korea but also from western Europe. Do you have any word of advise or concern about this trend?

Koreans follow trends easily and tends to change easily as well. I am a bit worried that Korea would blindly follow the welfare of Scandinavia. Rather than following that of northern Europe, we first have to develop our own tradition. We have our own precious cultural assets that we developed geographically and traditionally.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see is losing our own culture by temporary trends.

But at the same time, I believe there are virtues and values that Koreans want to learn from Scandinavia. Living a humble life in himself without boasting or being open to what others say would be good examples. Also, being honest to oneself and being steady and quiet are what we want to learn. Because people are usually quiet, sometimes it is not easy to make friends. Equal authority and values respecting human dignity are other lessons we can take.

After nearly thirty years of studying abroad, do you feel distant from your homeland?

Thirty years ago, Scandinavian countries as Norway, Sweden and Denmark were supporting Korean War with medical aid or military support. Today, those Koreans visit Scandinavia and help tourism business flourish in those countries. Scandinavian people also remember Korea as a diligent and successful nation with many multinational conglomerates.

What would be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Scandinavia of 1975 and of today?

I think people were more friendly, pure and happier back in 1975. Scandinavia today is a bit more polluted in terms of environment, more liberal and less happy. I would say the biggest reason would be capitalism and materialism.

Can you tell us why you think people are not as happy as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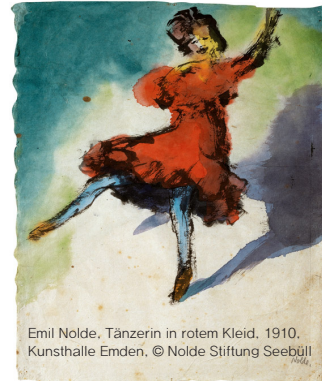
The birth rate is clearly one of the main reasons. People do not desire to have many kids and it surely will affect labor population of Scandinavia in the future. With more and more immigrants, people are living in a rather mixed society now. Not only refugees, but also people southern Europe and Africa are moving to northern Europe due to climate changes and other issues. New issues would come up to the surface brought by those changes of different races or nationalities.

From being the very first student who studied in Scandinavia, you are consistently being a pioneer and a bridge between the two. Do you have any word of advise for younger people?

I hope they know that things don't go as they wish or plan. Please try to make the best of your talents. Try to figure out what you want be and what you want to do rather than avoiding those thoughts and times. You can be a humorous decent man with cultural knowledge and soul. ●●



Emil Nolde, Zigeunermädchen, 1920-21.
Mrs. Gertrud A. Mellon Fund.
© Nolde Stiftung Seebüll



Emil Nolde, Tänzerin in rotem Kleid, 1910.
Kunsthalle Emden, © Nolde Stiftung Seebüll

Inspiring Artist



Emil Nolde, Großer Mohn, 1942,
Nolde Stiftung Seebüll, © Nolde Stiftung Seebüll

에밀 놀데(Emil Nolde, 1867~1956)

깊은 내면의 세계와 그가 평생 추구한 자연의 원천적이고도 근원적인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보다도 적절한 회화의 매체는 색채(Color)였다. 이로써 밀레는 대담한 색을 활용함으로써 색의 표현력 그 자체가 발휘되는 회화를 추구했다.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긴 건축가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건축 관념을 깨고, 오늘날 현대 건축에 적용되는 많은 이론을 만들어낸 선구자. 건축의 본질은 인간에 있다고 생각한 그는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기계”라고 정의할 정도로 인간을 위한 건축을 지향했다.

마르세유에 위치한 거대 주거단지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e d'Habitation). 현대 아파트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축물이다. 집단 거주지이지만 색색으로 칠한 전면 발코니와 넓은 창은 아름다운 미관을 자랑하지만 그 때 당시 ‘미치광이 집’으로 불리며 조롱 당하기도 했다.

